

한화에너지 창립 27주년

홍 순 목
〈한화 업무팀 대리〉

1. 머리말

「국제적 경쟁기반을 갖춘 종합에너지社를 지향하는 한화에너지는 1969년 역사적인 항구도시 인천시 일대를 근거로 국내 3번째 정유사로 탄생되었다. 국가경제 개발 5개년 계획에 따라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한화에너지는 국가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전력과 석유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해왔다.

’92년 원유정제능력을 27만배럴로 크게 늘린 한화에너지는 동시에 기존의 정유와 발전 중심의 사업구조에 석유화학, 윤활유, 아스팔트등을 추가하는 등 사업다각화를 추구해 왔다. ’95년 ’96년에 각각 30만KW와 60만KW급의 발전소를 추가로 준공한 한화에너지는 총 120만KW규모의 발전능력을 보유하여 국내 유일의 민간 발전소로서의 위상을 굳건히 하였으며 수도권 전력공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룹명 변경에 맞춰 ’94년 10월 경인에너지에서 이름을 새롭게 한 한화에너지는 이후 CI작업을 착실히 진행하여 ’95년 6월 주유소 Brand Name을 「에너지 프라자」로 정하는 한편 디자인을 새롭게 하여 소비자들에게 선진형 주유소의 신개념을 제시함으로써 높은 호응을 받고 있다.

석유산업 자유화와 대외 개방에 따른 무한경쟁의 파고에 대비하기 위해 한화에너지는 조직재정비를 통한 효율화, 고객맞춤 서비스 개발, 주유소 부대사업 발굴, 신제품 연구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2. 태동 - 2전3기의 집념

唯一無二하게 국내 화학산업을 선도함으로써 한국의 노벨로 불리는 金鐘喜 한국화학 사장은 평소 석유화학콤비나트사업에 진출할 구상을 하고 있었기에, 1966년 4월 7일 정부가 「제2정유공장 건설 및 경영희망자의 사업계획서 공모」를 발표하자 신속하게 참여를 결정하였다. 그러나 호남정유를 비롯한 6개업체가 벌인 경쟁에서 탈락의 쓴잔을 받게 된다. 제2정유사 설립의 꿈이 좌절된 金사장은 정유사 설립을 위해 노력하던중 같은 심정의 파트너를 만나게 된다. 바로 미국의 독

립계 석유회사인 유니온 오일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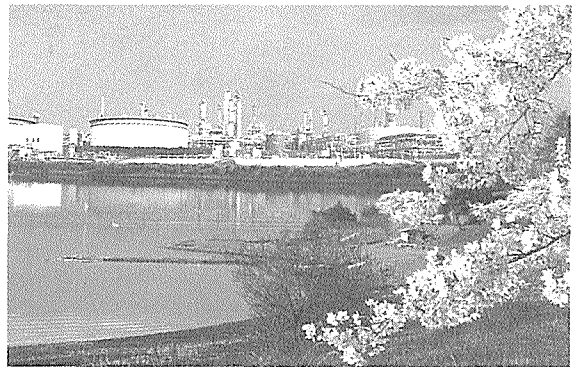
金鐘喜 사장과 유니온 오일사의 만남은 설욕을 다짐 하고자하는 의욕으로 쉽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 2정유 사로 허가를 따낸 호남정유 공장이 완공도 되지 않았기 에 제 3정유공장허가는 이야기조차 끄집어 내지 못할 때였다. 그래서 김사장과 유니온 오일사는 석유화학쪽 으로 방향을 잡았다. 석유화학에 진출하면 정유공장도 함께 추진될 수 있다는 복안이었다. 그래서 나프타 분해 공장을 仁川에 짓겠다고 허가를 제출했다.

그런데 공장이 들어설 仁川에 대한 입지가 벽에 부딪 치고 있었다. 정부에서는 석유화학공단을 유공이 있는 울산으로 예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김사장은 유공이 있는 울산보다는 수도권에 인접한 인천을 입지로 생각하고 있었다. 울산은 수송체계상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제기획원의 지지도도 불구하고 상공부는 한 화의 울산지역 부적격 논리에 반대하여 한화가 석유화 학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봉쇄하였으며, 한화의 석유화 학 진출은 또 다시 실패를 보게 된다.

정부는 토마스보고서로 일궈어지는 국내전력수요 측 정이 크게 빛나가자 67년 11월 27일 민간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확정 발표하였다. 우리 정부로 부터 전력수 요 측정용역을 받은 미국 토마스엔지니어링사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67년까지 국내전 력수요가 1백 10만KW로 증가될 전망이라고 측정했었 다. 그런데 66년말 현재 88만KW를 초과하게 되어 일 부제한 송전을 할 정도로 전력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그 당시 정부의 동력개발정책은 정부가 직접 관장해야 한 다는게 방침이었다. 그러나 전력개발을 담당해온 한국 전력의 외채부담능력이 한계에 달하여 더이상 전력개 발능력을 갖고 있지 못했다. 정부로서는 부득이 1백만 KW의 전력생산을 민자유치로 서두르게 된다. 金鐘喜 사장은 가칭 경인전력개발(주)를 설립하고 68년 1월 16 일 화력발전소 및 간이정유공장 건설을 위한 외국인투 자승인서를 경제기획원에 제출했다. 그리고 68년 3월 23일 유니온 오일사와의 전문 9조로된 화력발전소 및

부속연료유 처리시설에 관한 합작투자 계약서를 체결 하였다.

위와 같은 내용의 합작투자계약에 대하여 정부는 68 년 4월 10일 조건을 붙여 허가를 하게 된다. 허가조건은 벵커 C유나 나프타만을 생산하여 화력발전용으로 벵커 C유를 공급하고 벵커 C유 잔여량과 나프타 전량을 미 국으로 수출한다는 조건이었다. 1969년 2월 19일 인천 시 북구 원창동 석남동 및 울도 일대의 해안가 34만평 의 대지 위에서 화력발전소와 정유공장을 위한 기공식 이 거행 되었다. 미국의 Flour사가 공장의 설계와 엔지 니어링등 모든 건설 책임을 맡았다. 발전소 건설에



67,632,000달러, 정유공장건설에 36,368,000달러등 총소요 자금이 1억 4백만달러나 투자된 당시로는 엄청난 규모의 대역사의 시작이었다.

3. 설립 - 국가 산업발전애의 기여를 목표로

합작투자계약 체결, 공장 기공식, 정부사업 인가, 정 관의 작성등 일련의 절차가 끝남에 따라 마침내 京仁에 너지開發(주)의 창립총회가 1969년 10월 30일 오전 11 시 서울 중구 태평로2가 한국화약 사옥 회의실에서 개 최되었다. 1차 이사회회의 결의에 따라 경영진이 구성되 었고, 바로 11월 3일 京仁에너지開發株式會社로 서울 민사지방법원에 회사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즈음 제 2정유회사 설립으로 급증하는 석유수요에

대처했던 정부는 국내 산업활동의 확장등으로 석유수요가 더욱 증가하게 되자, 석유정책의 현실화를 위해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했다. 이때에 거론된 것이 경제기획원의 제 3정유 건설안과 상공부의 기존업체 시설확장안이었다. 이 두가지 안은 신중히 검토됐으나, 제 3정유사의 설립으로 의견이 기울어 갔다. 이때 발전소용 연료공급을 위해 1969년 9월 30일 5만배럴의 정유공장 사업허가를 이미받아 놓았던 京仁에너지개발(주)는 기존 회사들보다 외국 합작회사와의 운영협정에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던 회사의 입장을 강조, 정식 정유사업 인가를 강력히 추진하였다. 더불어 회사는 1970년 2월 25일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社名을 京仁에너지 株式會社로 변경하였다. 마침내 1970년 들어 정부는 제 3정유회사의 신설을 결정하고, 6만배럴을 허가하여 京仁에너지를 제3정유회사로 내정함으로써 京仁에너지는 정유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모습을 바꾸게 되었으며, 간이 정유공장 설립허가시의 전량 수출조건도 자연스럽게 해제됨으로써 명실공히 제 3정유회사로서의 출발을 시작하였다.

'71년에 들어서는 공장 부대시설도 연이어 완공되기 시작하였다. 울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2,270미터의 해중도로 송유관은 '71년 1월에 완공되었으며, 2월에 들어서는 7만톤의 집안능력과 시간당 37,500배럴의 원유하역능

력을 갖춘 부두시설도 완공되었다. 3월에는 공장운전요원을 공개모집으로 80여명을 선발하여 공장가동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원유 공급계약에 따라 4월 26일 22만배럴의 이란 産 원유를 실은 *Sea Fara*호가 역사적인 입항을 하였으며, 5월 22일에는 정유공장이 힘차게 가동을 개시하게 되었다. 정유공장이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준공을 준비하는 가운데 울도에 건설되고 있던 발전소는 '71년 12월 완공을 보고 이듬해인 '72년 2월 21일 상업발전을 개시, 한국전력에 324,800KW의 전력을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마침내 1972년 4월 17일 울도 발전소 운동장에서 정유공장과 발전소의 준공식이 성대하게 베풀어졌다. 1968년 3월 23일 美國 유니온 오일과의 합작투자계약이 체결되어 '69년 2월 19일 착공한 이래 34만 2천여평의 광대한 부지위에 연인원 108만여명이 투입되고, 1억 4천만달러의 자금이 소요된 당시 최대규모의 민간 프로젝트사업이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이날 준공식은 朴正熙대통령, 태완선 부총리등 정부 요인과 재계인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朴대통령과 金鍾喜사장, 그리고 유니온 오일의 하틀리(Hartley)사장이 준공테이프를 끊었으며, 이 광경은 KBS 라디오로 전국에 중계되기도 하였다.

金鍾喜사장은 식사를 통해 『기간산업시설을 통해서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을 기업이념으로 삼은 기업인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이러한 결의를 다짐드리고자 한다』고 하였다. 이어 朴正熙대통령은 치사를 통하여 『京仁에너지 준공은 우리 나라 경제에 있어 또 하나의 경사로서 이 공장이, 이 회사가 앞으로 우리나라 경제건설에 특히 기간산업으로서 충분히 그 역할을 다할 것을 확신하며, 국가 경제건설에 크게 이바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4. 合作期 - 석유산업의 신시대를 개척하는 京仁에너지

석유류 전 제품의 생산을 시작한 京仁에너지는 '71년 11월 25일 B-C油와 디젤유 판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개시하였다. 「석유산업의 신시대를 개척하는 京仁에너지」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후발업체의 불리함을 우수한 품질과 최적의 서비스, 최단시간 수송 등으로 극복하여 나갔다. 또한 '72년 6월 14일자로 第三石油會社の 주식을 100% 소유함으로써 생산, 판매의 일관된 체계를 확립하였다.

제4차 중동전쟁을 계기로 발생한 1973년의 제 1차 석유위기가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은 엄청난 것이었다. 해외 의존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었던 우리경제는 국제 경제의 모든 불안요인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와같은 상황아래서 이제 막 정유회사의 모습을 비추기 시작한 京仁에너지는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경인에너지는 원유공급능력이 불충분한 독립계 석유회사인 유니온 오일이 회사소요원유의 전량을 책임지기로 하였기에 더욱 심각할 수 밖에 없었다. 이미 공장은 정제시설능력을 지난 '72년 7월 30일에 日産6만배럴 규모로 확장시켜 놓은 상태였으며, '73년 11월에는 충청지방에 2개의 대리점을 확보하는 등 영업판매망도 전라도와 강원도를 제외한 전국에 구축 완료되어 판매할 물량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74년을 고비로 유가의 폭등과 원유부족현상은 다소 진정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원유파동을 경험한 경인에너지는 예측 불가의 외부환경에 대비하여 내실을 다지기 위한 내부 경영개선에 주력하기 시작하였다.

'75년 5월에는 국내의 제반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기획실, 법제실을 신설하는 등 중역실의 기능을 보강하였다. 또한 수익성이 높은 제품판매에 주력하여 주한미군과 JP-4유의 판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신설 주유소의 확충에 박차를 가하였다.

'75년 말로 UNOCO사간의 원유수송 계약기간의 만료되어 외국선박을 이용한 원유수송으로 인한 소요 경비가 원가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자 京仁에너지는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경영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유류

수송 전담회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75년 12월 15일 한국화약 그룹 계열사로 설립된 (株)星運物産과 '76년 8월 25일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여 내실을 다지는 발판이 되었다.

내적 경영개선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외형적 성장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75년도를 기점으로 매출액이 1,000억원대를 넘어섰으며, 매년 25-30%의 신장률을 기록하는 등 회사 전반적인 분위기가 안정제도에 진입하는 모습을 보였다.

5. 내국화 - 도약을 위한 결단

두차례의 석유위기를 겪은 후 석유수요의 신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에, 석유수요 패턴이 현저한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전의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기인하여 B-C유 중심의 重質油소비보다 휘발유, 등유, 경유 등 경질유 소비증가가 두드러졌다. 京仁에너지의 창업자인 玄岩 金鍾喜회장의 급작스런 타계이후, 새로이 京仁에너지 사장으로 취임한 金昇淵 한국화약그룹 회장은 京仁에너지를 단순한 정유회사 차원에서 탈피하여 굴지의 종합에너지회사로 키우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을 갖고 있었다. 이와 같은 계획아래 경인에너지측은 정제시설의 확장, 중질유 탈황·분해시설, 저장시설등의 신규 시설 투자의 필요성을 UNOCO측에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러나 美國내에서도 보수적 경영으로 이름난 유니온오일측은 한화에너지의 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는 커녕 이익금의 전액 배당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그들로서는 불확실한 해외정유사업에 신규투자를 계속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투자비에 대한 과실송금만을 챙기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에따라 金회장은 京仁에너지를 내국화시키고자 결정을 내렸다. 金昇淵 회장은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경영체제 확립과 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을 京仁에너지의 내국화 목표로 삼았다. 또한 10여년간의 경험으로

기술적으로도 공장의 자체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3차례의 협상끝에 '84년 10월 31일 한국화학측은 매우 유리한 조건으로 최종안을 관철시킴으로써 내국화를 달성하였다. '83년말로 본격적인 단독 경영체제를 갖춘 京仁에너지는 '90년대를 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하였다. 그 첫번째가 해외유전개발 사업에의 참여였다. 석유위기 이후 원유 확보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은바, 자체적인 원유도입선의 확보라는 측면과 함께 원유부터 정제, 판매에 이르는 수직계열화를 이룬 종합 석유회사를 만들고자 하는 경영방침에 따라 '85년 부터 해외유전개발 사업에 참여하기 시작한 것이다.

두번째로 사업영역의 확장을 통한 경영다각화의 일환으로 유희유사업에도 참여했다. 거의 모든 유희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국내석유제품의 수요대체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京仁에너지는 '88년 8월 영국의 BP사와 정식으로 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하였다. 1989년 12월 4일 첫 생산을 시작한 경인에너지의 유희유공장은 현대시설을 갖춘 것이 특징으로, 특히 유희유제품의 질을 좌우하는 배합과정에 있어 무게정량을 컴퓨터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하는 시설(PLC방식)을 국내 최초로 갖춘점이 두드러지는 자랑이다.

세번째는 부산 저유소의 건설이었다. 京仁에너지는 공장이 仁川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영업판매에 있어 수도권 중심의 지역적 편중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남부지방에 공장을 두고 있는 타정유사도 상대적 입장은 마찬가지 였으나, 수도권지역 다음으로 다량 소비처인 부산, 영남지역의 판매망 확보를 위하여 京仁에너지는 부산에 저유소를 건설키로 하였다. 이것은 지리적 여건에서 오는 유류 공급의 곤란함을 해결함과 동시에 향후 제품수입에 대비한 輸入基地 확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한 사업이었다. 이러한 사업결정을 내린 京仁에너지는 '85년에 확보해 두었던 부산시 동삼동 201번지 일대 22,450평의 부지위에 '87년 6월부터 총 34만배럴 규모

의 부산 저유소 건설공사를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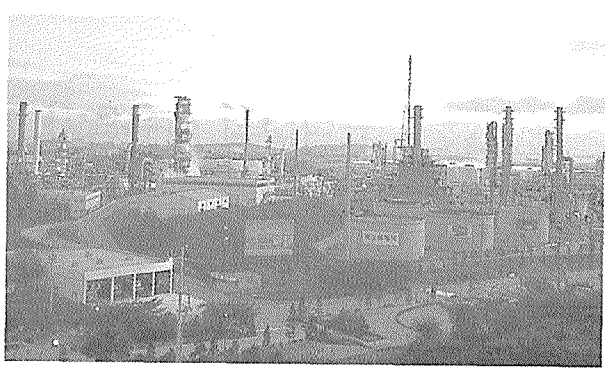
6. 제 2의 창업- 제 2 원유정제시설 준공

지난 '79년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정부의 허가까지 받고서, 사업착수를 시작하기 직전, 예기치 않게 닥쳐온 제 2차 석유위기로 인하여 부득이 중단할 수 밖에 없었던 정유공장 증설사업은, 석유위기가 진정된 '81년 이후에도 쉽게 착수할 여건이 못되었다.

이는 京仁에너지의 경영권을 잡고 있던 UNOCO측에서 신규투자에 대해서 미온적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기 허가한 10만배럴의 증설을 계속 독려하여 왔다. 京仁에너지로서는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었다. 국가 기간산업체로서의 소임을 다해야 함은 물론, 회사로서도 경제규모의 정제능력을 갖추어야 경쟁력있는 회사로서 성장이 가능하였기 때문이었다.

이같은 진퇴양란의 여건은 유니온 오일측의 철수로 '84년 들어 호전될 수 있었다. 그러나 京仁에너지가 이처럼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국내 석유수급의 실정 또한 많은 변화가 생겨났다. 우선적으로 국내 석유의 수급 전망이 고려되었다. 또한 환경오염대책과 관련한 중질유 탈황·분해시설 설치와의 연계문제도 고려되었다. 더불어 '85년을 넘어서면서 급격히 증가되는 경질유 특히, 휘발유제품의 수급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

이러한 여러 제반 사항을 종합검토한 끝에 석유정제 시설 증설을 위한 세부추진계획서가 '88년 6월에 확정됨으로써 마침내 제 2의 창업이나 다름없는 정유공장 증설사업이 '89년 4월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었다. '79년 이후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중단되고, 지연된지 10년만에 숙원사업이 궤도진입을 하게 된 것이었다. 착공 이후 32개월의 공사기간과 4개월의 시운전기간을 거친 끝에 드디어 '92년 3월 12월 金昇淵그룹회장을 비롯한 京仁에너지 모든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京仁에너지 인천 공장에서 원유정제 시설 및 BTX생산시설에 대한 준공



식이 열렸다. '72년공장 준공식 이후 정확히 20년만에 경인에너지의 새로운 歷史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이날 준공식에서 金昇淵회장은 기념사를 통하여 「지금 이시간부터 경인에너지 제 2의 창업을 선언한다.」고 말하였다. 실로 故 玄岩회장을 비롯한 수많은 이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땀과 정열이 모여서 이룩된 京仁에너지의 20년사가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는 순간이기도 하였다. 6만배럴의 정제시설이 27만 5천 배럴의 국제적 규모를 갖춘 대규모 공장으로 탈바꿈 했을 뿐만 아니라 BTX생산을 계기로 유전개발, 정유, 석유화학에 이르는 회사로 변신하므로써 경인에너지는 종합석유 정제 및 석유 화학회사로 새롭게 태어났다고 하겠다.

7. 또 하나의 도약 - 21세기 국제적 경쟁기반을 갖춘 종합에너지社로

'94년 10월 1일 부터 경인에너지는 그 이름을 바꾸어 한화에너지로 새롭게 태어났다. 「경인」이라는 사명은 지역적인 한계를 함축하고 있었으며 세계화를 지향하는 시대의 조류에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름을 새롭게 한 한화에너지는 이름에 걸맞는 일들을 벌여 나가기 시작했다.

그 첫째가 새로운 생활주유소 에너지 플라자 탄생이다. 한화에너지는 「새로운 생활주유소」라는 컨셉으로 주유소 이름을 「에너지 플라자」라고 정하였다. 이를 계기로 서비스 혁신을 이루어 인적, 물적 서비스에서 품질 서비스에 이르기 까지 참신한 서비스를 발굴하여 적용하였다. 에너지 플라자 주유소는 외관상 느껴지는 차별하고 지적인 이미지와 부드럽고 신속한 서비스가 조화를 이루면서 한화에너지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의 주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둘째는 해외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이다. 한화에너지는 우선 구소련지역의 그루지아와 카자흐스탄에 석유유통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시작하였다. 이들지역이 개방과 자유시장경제를 도입하면서 새로운

마켓으로 부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화에너지는 이들 지역에서 올 연말까지 대형 복합주유소 건설을 마치고 석유제품 유통에서 부터 사업을 확장하여 생필품 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장기적으로 석유개발, 정제업으로 사업다각화를 꾀할 계획이다.

세째로 안정적인 사업구조의 확립이다. 발전과 석유 화학 분야의 대폭적인 확충으로 그동안 정유쪽에 치우쳐 있던 사업구조의 안정화를 기하게 되었다. '95년 11월에는 BTX생산능력을 연간 31만톤에서 45만톤으로 대폭 증설했으며, 추가 증설이 진행중에 있다. 특히 발전시설의 경우 획기적인 확장이 실시되고 있다. 지난 '95년 30만 KW급 발전소 증설을 마친데 이어 '96년 6월에는 60만KW급 발전소 증설을 성공리에 마무리했으며, '98년까지는 총 165만 KW급의 대형 민간발전소로 거듭나게 된다.

네째로 최고를 향한 도전 - TWIST/BEST PLAN 운동 추진이다. TWIST(Team Work, Information Sharing, Total mind의 머릿글)란 모두 한마음으로 트위스트를 추듯이 조직원 상호간의 신뢰속에 장벽 없이 정보와 자원을 공유하며 신바람 나는 조직을 만든다는 의미이며, BEST(Behavior, Effectiveness-Oriented Spirit, Top Level의 머릿글)는 말보다 실천을, 형식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중시하며 다양한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전임직원이 각 분야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화에너지는 전직원 체육대회, 등산대회 등 응집력 강화를 위한 활동과 「최고경영자와의 대화, EF(Energy Family)-Meeting, 사장 직소제도등의 정보공유를 위한 활동 그리고 개인의 업적을 중시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新인사고과제도의 도입등의 제도개선행동을 실시하여 신바람 나는 직장, 도전과 창의력이 대접받는 직장 풍토를 조성해가고 있다. ♣